

말씀/ 사도행전 15:1-41

요절/ 사도행전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선교에서 문제가 된 복음과 율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자, 일부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시끄럽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확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總會)였습니다.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the Council of Jerusalem/ 사도 공의회 Apostolic Council/ 교회 회의)였으며, 이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 헌장(憲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성과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배우고,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깊이 영접하고, 구원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바울과 바나바 (1-5)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1) 유대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형제들이 안디옥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을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1b) 이것은 뼈 속까지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약 시대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고 아들이 나면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신분증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그들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형제들도 비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할례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율법 그 이상의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진리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13:39)” 사도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 안디옥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할례를 받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단순히 낯설고 생소한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외에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99%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가 율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1%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일생 율법의 의무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신 고마운 분이시지만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양떼들은 이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율법적인 생각이 파고들어 오게 되고 심령이 막히고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어떤 성급한 형제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일단 할례부터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a절을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란 영어로 sharp dispute and debate인데 날카롭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파 성도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근거와 유대 전통관습을 근거로 율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격이 좀 팔팔한 바울이 앞장서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양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다투고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양들 보는데 싸우지 말고 적당히 한 발씩 양보하자. 복음도 좋고 율법도 좋은데 복음이 더 좋다. 복음이 좋긴 하지만 경건한 율법을 더하면 더 좋아 진다” 이렇게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어떠한 +a라도 가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죄악이요, 무언가 더하여진 복음은 그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간파한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디옥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누리려는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세력과 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진리와 절대성을 굳게 붙들고 조금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과 타협하여 할례를 묵인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 속에 사장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또 이방 세계의 선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타문화권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 해도 복음의

진리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양떼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갈2:4,5).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많은 불신이 심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기는 쉬워도 한번 심겨진 불신을 뽑아내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또 할례파 유대인들도 물려서지 않고 여러 가지 이론과 말로 도전해왔습니다.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도,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형제들의 주장도 모두 일리가 있어 보였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형제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의 몇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2b)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하였고, 그들의 영적 방향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에 따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 경유지인 베니게와 사마리아 센터에 들러 세계선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의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3)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4,5)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과 또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들은 일차 선교여행 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했을 것입니다. 보고회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서 행하신 크신 역사를 보고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세계선교 비전이 넘쳤을 것입니다. 보고회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웠던 보고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가 안건(案件)으로 올라오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5b) 그래야 죄악 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II. 예루살렘 총회 (6-35)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6,7a) 사도와 장로들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보다 좀 더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다투지는 않고 모여서 많은 변론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

대인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높은 사회적 지위나, 학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행했으며, 특히 구주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도님들, 장로님들도 다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주장할 때는 정말 이들의 말이 옳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총회 시작부터 양측의 주장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용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7b-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피력(披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12년 전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시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오직 그들로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언하여 주셨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저희를 깨끗이 하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불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성결한 생활이 실현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였거나 어떤 의를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구원은 1%라도 그들의 어떤 공로에 기초하지 않고 100%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넬료 사건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이방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영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8). 둘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사실입니다(9).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를 기초로 베드로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10)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심각하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롬1:16). 그런데도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불신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조상과 자신들도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이 조상과 우리도 메지 못하던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율법의 명에는 누구도 뗄 수 없는 무겁고 힘든 명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메고 있던 명에도 풀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전에 없던 명예를 양들의 목에 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명예를 쓰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의 명예를 메고 구원을 얻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호라, 나는 끈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롬7:24).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지지 못하던 그 명예를 어떻게 다시 양들에게 지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모순된 행위요, 양들을 저주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송아지같이 뛰놀던 양들 목에 무거운 명예를 탁 씌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명예를 쓰면 자유와 기쁨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부정적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세계선교보고회(6월5일) 때 인생소감을 발표한 Bob Henkins 목자는 12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생부(生父-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공부는 안하고, 파티 쫓아다니며,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마약도, 팟, 애시드, 스피드, 코카인등 여러 종류의 독한 마약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여 두 번이나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Paul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일대일 말씀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는 창세기, 요한복음, 출애굽기 공부를 마치기까지 예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양을 Paul 선교사님은 아무런 명에도 메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엉망인 그가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수양회 말씀강사로 세움 받았는데 수양회 바로 전에도 여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쫓아내 버렸겠지만 선교사님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말씀을 100번 쓰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100번 쓰면서 죄인 된 자신을 깊이 발견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회리이다(시51:7)" 다음날 일어났을 때 흰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졌음을 영접하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흰 눈을 보면서 울었

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목상하며 비로소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문화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마약중독자요, 정욕의 죄인 Bob을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시카고 UBF에 주일 예배사회자가 되었고, 지금은 IIT 대학을 개척하는 책임목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명문대학 North Western의 예측분석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드라마틱하다고 했습니다. 의붓아버지와 관계도 회복되었고, 재작년에는 시카고 연합성탄예배 메신저로 쓰임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놀랍기만 합니다. 만약에 Paul 선교사님이 “너 마약부터 끊고 와라” “주일예배를 나와야 말씀공부 해 준다” 이런 저런 멍에를 메었다면 그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멍에도 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서 큰 목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어떤 양을 보내주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분명한 fact를 근거로 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11)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功勞-행위에 대하여 보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 good news가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다만 은혜로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2:21b)”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데 다른 것을 앞세우면 십자가가 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계했습니다(갈1:8,9).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자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행위규범이 많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그 순간 잠깐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부터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불의한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성도 체질은 맞는데 목자 체질, 성경선생 체질, 제자 체질은 아닌 것 같으며 성경에 없는 체질론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채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믿음 반, 율법 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로 사는 법,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반드시 배워서 이를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자 날마다 투쟁하는 가운데 수시로 파고드는 모든 율법적인 생각,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은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12) 베드로의 말에 그 동안 열심히 변론을 하던 모든 무리들은 침묵(沈默)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1차전도 여행 중에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체험한 그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결론을 위해 예루살렘 총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13)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현재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되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들 편으로 여길 만큼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율법 준행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야고보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행함을 강조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야고보가 혹시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나 않을까 기대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14) 그는 다 알고 있는 대로 시므온(베드로를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처음으로 이루셨음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16-18절을 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16-18) 이 말씀은 아모스 9:11,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유대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고넬료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선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증언했던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 사도 베드로의 증거가 성경적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뜻을 두셨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심을 확증해 보였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의 말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확증(確證)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사실을 기초로 결론(結論)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19-20) 그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할례나 율법을 지키라하여 괴롭게 말자고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말자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는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네 가지 금지사항을 포함시키자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네 가지 금지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인데 이는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부도덕한 성생활입니다. 이러한 음행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도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인데 이는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피 쟈 먹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넷째는 피를 멀리하라는 것인데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21) 이는 당시 각 성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언급한 네 가지 금지사항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생각하여 지켜야 할 일들로 방향을 준 것입니다.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여 잡아먹는다거나 피가 흐르고 있는 고기를 회 쟈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네 가지를 지키라 한 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극도로 혐오감(嫌惡感)을 가지고 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유대인 성도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대하는 문제들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걸림이 되는 어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고전8:9-13)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고전8:1)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기도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자세가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혐오감을 가진다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자기 몸에 좋다고 유대인 성도 앞에서 짐승의 피를 벌켜 벌켜 마신다는 것은 다른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자기의 행위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하고, 자기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야고보가 금지한 것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도 크게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똑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서로 배려(配慮)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상호 간에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인 신자도 자기주장만 하면 안 되고

이방인 신자도 자기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식성(食性)이 다를 수 있고, 삶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한국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게 몇 가지를 삼가도록 했습니다. 첩(妾)을 얻는 것, 놀음 하는 것,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등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것들을 당시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유요 우상숭배를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최소한의 삼가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은 감당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술 담배 문제나 마약, 노름, 음란비디오 같은 것들은 삼가야 할 것들입니다. 반면에 일용할 양식이나, 1:1양치기, 소감 등은 UBF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영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권하는 것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복음 진리에 서서 볼 때 최소한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위해서 이 시대에서 삼가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을 보증할 사절단(使節團)에 뽑혔습니다. 23-29절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들 편에 부친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편지의 수신인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의 궤방이 안디옥 교회에 국한(局限)되지 않고 온 이방인 교회로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 줍니다. 24-27절은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를 적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24-27) 사도와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최고의 칭찬을 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깊이 신뢰하는 훌륭한 목자들임을 보증(保證)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의 최종적인 결정 사항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28,29) 사도와 장로들은 이 결정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여 성령을 앞세웠습니다. 이는 총회의 결정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확증했습니다. 이로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헛된 주장이었음이 만천하(滿天下-은 천하)에 공포(公布)되게 되었습니다. 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은 이후 기독교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도그마(Dogma), 곧 공식적 교리 1호를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놓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계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진리가 확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민족, 문화, 전통, 관습, 할례, 무할례 등 모든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일어난 문제를 본 교회가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본 교회와 이방 교회와의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30,31) 본 교회의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동안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그들은 흔들리던 신앙을 바로 잡고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32,33) 함께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제가 완전히 수습되자 형제들의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35)

III.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 (36-41)

36-41절까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다투고 갈라섰다는 심히 은혜롭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36)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게 되었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39) 그리하여 바나바는 자기 뜻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40,41)

결론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또 성령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복음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 세계화되고 이방선교를 위한 교리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거짓 진리가 난무(亂舞)하는 이 시대에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평생

간직하고 증언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양떼들이 떼고 있는 율법과 죄의 멍에를 벗겨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세계 선교 사명을 줄기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